

<럭키>

석유화학사업 부진 생활용품 활성화로 만회

럭키(대표 최근선)는 지난해 하반기 럭키소재·럭키제약의 흡수합병 및 럭키유화의 영업양수를 감안, 올해 매출액을 2조15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% 늘려잡고 있다.

럭키의 91년 총 매출규모는 1조8379억1000만원으로 외형성장은 전년대비 15.9%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, 순이익은 437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.2% 감소했다.

사업별로는 유화·합성수지사업 36%, 산업건재 34%, 생활·정밀화학 30%의 고른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, 유화·합성수지부문 매출액은 6704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.7% 증가했다.

FRP·바닥재 등 산업건재부문 매출액은 6233억1000만원으로 20.6% 증가했으며, 생활·정밀화학부문 매출 규모는 5441억8000만원으로 14.9% 증가했다.

<표1> 럭키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

(단위:억원, %)

항 목	1988	1989	1990	1991
매 출 액	12104.3	12854.4	15852.9	18379.1
증 가 율	30.3	6.1	23.3	15.9
매출총이익	2514.7	3039.5	3671.7	4343.3
영 업 이 익	1139.0	1301.7	1495.9	1652.6
경 상 이 익	955.4	960.5	883.5	560.4
당기순이익	638.8	640.1	618.5	437.8
증 가 율	120.9	0.2	△3.3	△29.2
유 동 자 산	3982.9	4651.1	6140.4	8410.1
고 정 자 산	5016.3	6718.1	7874.6	12716.8
자 산 총 계	10421.4	13582.2	17708.0	26382.2
유 동 부 채	3538.6	4398.3	6001.6	9668.8
고 정 부 채	3053.6	4120.8	5295.6	8984.9
부 채 총 계	6592.3	8519.1	11297.2	18653.7
자 본 금	2000.0	2420.0	2700	3316.1
자 본 총 계	3829.0	5063.0	6410.7	7728.4

<표2> 럭키 주요 사업별 영업실적 및 전망

(단위:톤, 억원, %)

구 분	1990		1991			1992(예상)		
	수 량	금 액	수 량	금 액	증감률	수 량	금 액	증감률
P S	101,150	938.7	128,450	1284.5	36.8	135,000	1350.0	5.1
A B S	109,433	1321.1	124,518	1408.7	6.6	135,000	1500.0	6.5
P V C	256,259	1663.8	283,843	1033.3	△37.9	300,000	1060.0	2.6
L D P E	52,307	390.2	93,891	630.8	61.7	120,000	870.0	22.1
S M	94,651	668.3	149,974	774.5	15.9	270,000	1220.0	57.5
옥 탄 올	115,424	661.2	115,222	356.9	△46.0	120,000	4500.0	26.1
기 타	—	304.0	—	1215.5	299.8	—	920.0	△24.3
석 유 화 학	—	5947.6	—	6704.2	12.7	—	7270.0	8.4
바 닥 재	—	5168.5	—	6233.1	20.6	—	6920.0	11.0
FRPWUBR등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카 본 블 랙	78,938	315.6	142,903	697.2	120.9	—	—	—
염 료 ㄱ 농 약	—	4421.1	—	4744.6	7.3	—	7310.0	34.3
계면활성제등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생활정밀화학	—	4736.7	—	5441.8	14.9	—	7310.0	34.3
총 매 출	—	15852.9	—	18379.1	15.9	—	21500.0	17.0

주) 증감률은 금액기준, △는 감소

품목별로는 PS·ABS부문이 각각 1284억5000만원(유화·합성수지 매출액중 19.2% 차지), 1408억7000만원(21.0% 차지)으로 36.8%, 6.6% 신장했으며, LDPE는 630억8000만원(9.4% 차지) 61.7%, SM은 774억5000만원 15.9% 성장해 PS와 LDPE의 매출 성장이 높았다. 반면, PVC 매출규모는 1033억3000만원(15.4% 차지)으로 전년대비 37.9% 감소했으며, 옥탄올은 356억9000만원으로 46.0% 감소했다.

한편, 올해 럭키 매출 예상규모는 2조1500억원으로 유화·합성수지 7270억원 8.4%, 산업건재 6920억원 11.0%, 생활·정밀화학 7310억원 34.3%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유화·합성수지부문은 가격하락 요인 등으로 8.4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생활·정밀부문의 매출증가율은 34.3%로 크게 늘어 잡았으나, 이는 만년 적자상태를 보인 정밀화학·소재부문의 매출증가 및 생활용품의 높은 신장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.